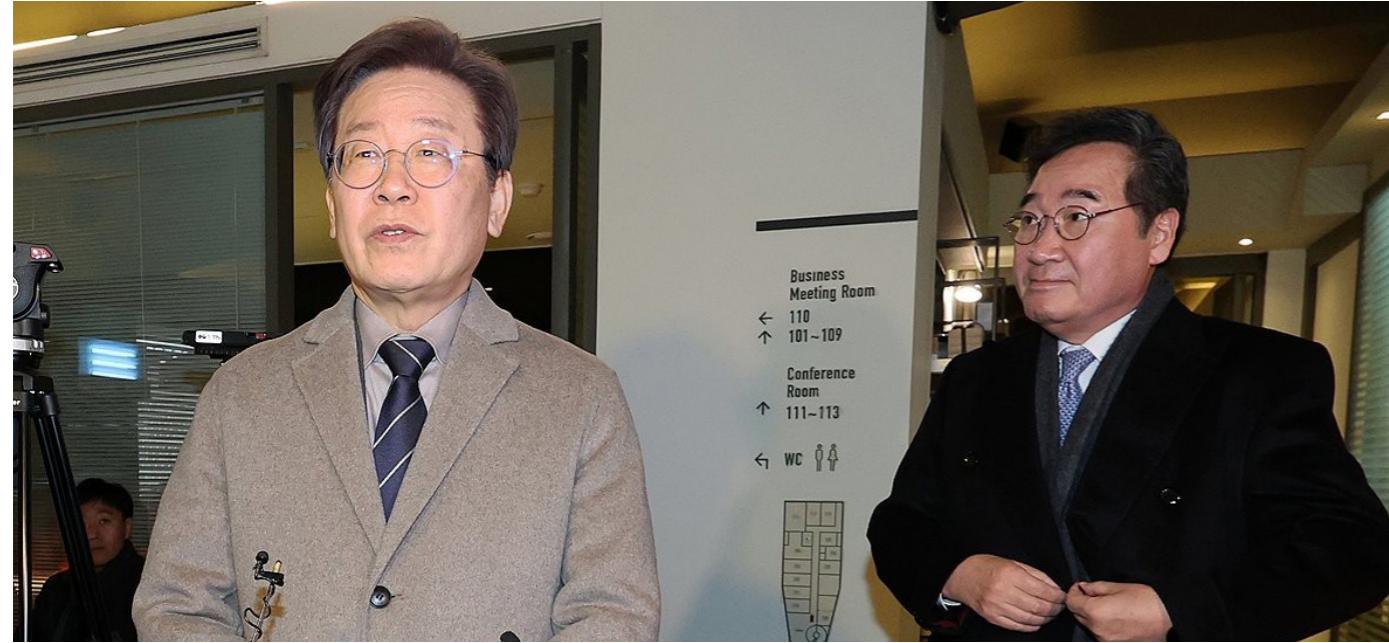


세계연합신문
모바일 보기

제1342호 (2024년 1월 1일 월요일)

대표전화 : 1533-1545

이재명 “사퇴·통합 비대위 수용 불가” 이낙연 “제 갈길 가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종구의 한 식당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회동을 마친 후 입장문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종구의 한 식당에서 전격 회동해 갈등 봉합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이에 따라 및 이 전 대표가 조만간 탈당 및 신당 창당 수순을 밟을 가능성 커진 것으로 보인다.

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당에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될 수 있고 실제로 기대치에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당을 나가시는 것이 길은 아닐 것이라는 간곡한 말씀을 드렸다”며 “어떤 경우에도 가능한 길을 찾아서 단합을 이

는 푸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단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오늘 민주당의 변화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게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탈당할 것인지를 묻

주말 전격 회동에도 갈등 봉합 실패…이낙연 탈당·신당 수순 밟을 듯 이재명 “탈당 재고 부탁”에 이낙연 “당 변화 의지 확인 못해”

이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당은 기존 시스템이 있다. 당원과 국민의 의사가 있어서 존중해야 한다”며 “따라서 사퇴나 비대위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박성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표는 또 “엄중한 시기인데 당을 나가는 것보다 당 안에서 가능한 길을 찾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이낙연 대표님이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는 것은 당을 나가는 게 아니라 당 안에서 지켜 나

뤄내고 그 힘으로 절망적인 상황 이겨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에게 “다시 한번 깊이 재고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한 뒤 먼저 자리를 떠났다.

이 전 대표는 이어 취재진 앞에 서서 “오늘 변화의 의지를 이 대표로부터 확인하고 싶었으나 안타깝게도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형편 없

자 “차차 말씀드리겠다.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제 갈 길을 가겠다”라고 답해 사실상 탈당을 시사했다. 그는 “당 안팎에서 충정 어린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답을 기다렸으나 어떠한 응답도 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게 직접 통합비대위 요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그걸 거부했다”라고 했다.

/ 박준호 기자

신년사

“2024년 새해, 빠르게 격변하는 시대 함께 손잡고 대응할 것”

갑진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찬바람이 거세지만 우리는 눈을 녹이며 올라오는 보리싹처럼 희망의 새 아침을 맞습니다. 용맹한 용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검찰연합일보는 정도를 걷는 언론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사람과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추가하고, 행복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넷에는 이미 수 많은 정보가 넘쳐나지만, 정작 독자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정보는 부족합니다. 정보에 담긴 가치를 분석하고 통찰력 있는 분석



송 원 기 회장
(세계연합신문 발행인·논설위원)

을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돋울 것입니다.

검찰연합일보는 단순보도를 지양하며, 차별화된 콘텐츠와 새로운 시도로

여러분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 부단히 채찍질하겠습니다.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참 언론의 모습을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독자와 늘 같이 호흡하고 고민하는 친구가 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언제든 독자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미디어로 독자가 언제든 이웃처럼 친숙하게 느끼고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독자와 소통의 힘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2024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참여를 적극 환영합니다.

Photo News



갑진년을 앞두고

푸른 용의 해 갑진년(甲辰年)을 사흘 앞둔 29일 오후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 푸른 용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한동훈, 與비대위원 ‘노인비하’ 논란에 노인회장에 사과 전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민경우 비상대책위원의 ‘노인 비하 발언’ 논란과 관련해 대한노인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민 위원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조만간 찾아뵙겠다”고 말했다고 김 회장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김 회장은 통화에서 “한 위원장이 오전에 전화 와서 찾아뵙겠다고 했고, 대한노인회에 찾아오는 시간을 조율하기로 했다”며 “한 위원장이 죄송하다고 하기에 ‘노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분이기 때문에 민 위원이 유능하더라도 사퇴해야 수습될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새해 초 최대한 빨리 김 회장을 만나기 위해 대한노인회 방문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 위원은 비대위원에 내정된 이후 지난 10월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지금 가장 최대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거다. 빨리 빨리 돌아가셔야”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민 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과거 신중하지 못했던 표현을 했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거듭 고개

를 숙였다.

이어 “386 세대가 나이와 지혜로 젊은 세대의 진입을 막는 사회적 현상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실수”였다고 해명한 뒤 “그 발언을 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했다. 앞으로 언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민 위원은 전날에도 당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어르신들을 비하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신중치 못한 표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민 위원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회의에서 재활의학과 교수인 한지아 위원을 소개하면서 “우리 당은 어르신을 공경하는 정당”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회의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노인회에서 민 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질문을 받자 “한 위원장이 대한노인회에 가서 직접 의견을 듣고 사과하는 방법도 고민했는데 노인회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며 “최대한 유감의 뜻을 표현하려 한다”고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당원, 구성원의 일시적인 잘못된 표현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 마음 아픈 분들이 있다면 거듭 죄송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민 위원이 과거 유튜브에서 ‘우수한 일본 청년

들이 조선 식민지 개척했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었지만, 당 미디어별률단은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가 틀린 오보”라며 “법적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기자들이 민 위원의 해당 발언 논란에 관해 묻자 “아까 그것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했다.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질문 답변이 있었다”며 “우리 당에서 그 취지가 아니라는 언론 대응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 위원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본인이 사과를 드렸다”면서 “특히 어르신들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선 부적절한 발언이고 정말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호남대안포럼 대표인 박은식 비대위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병역 혜택 강화 등을 주장하며 “전쟁에서 지면 집단 ㄱㄱ(강간)이 매일 같이 벌어지는데 폐미니즘이 뭔 의미가 있나”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와 관련, 박 위원은 통화에서 “2020년인가에 쓴 페이스북 글을 갖고 써놨다”면서도 “안보가 소홀하면 인권이고 기본권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한 표현이 들어간 것 같다”고 해명했다.

/ 이영찬 기자



尹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저 오찬…석달 연속 회동

尹,朴에 “서울에 편하게 자주 오시라”…산책하며 靑 관저 관련 담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정오부터 약 2시간 20분간 한식으로 진행된 오찬에는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관섭 정책실장 겸 비서실장 내정자, 유영하 변호사가 참석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이 먼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물으며 대화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서울에 온다는 박 전 대통령에게 “편하게 자주 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오찬 후 10분 정도 관저 정원을 산책했다.

윤 대통령은 사저동 내부까지 박 전 대통령을 안내하며 “이 관저가 박정희 대통령이 1968년 외교부 장관이 외빈을 맞이 할 마땅한 공간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육군 공병대에 지시해 지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영접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만난 것은 이번이 취임 후 세 번째다.

지난 10월 2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 때 취임 후 처음 만난 데 이어 지난달 7일 대구 달성군 박 전 대통령 사저에서 두 번째 만남을

했다.

최근 3개월간 매달 1차례씩 만난 것으로, 이번에는 대통령 부부의 생활 공간인 관저로 초청해 환대했다.

윤 대통령 내외는 박 전 대통령이 정오께 관저에 도착했을 때 직접 영접했으며, 박 전 대통령이 오찬 후 돌아갈 때도 함께 배웅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만남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윤 대통령이 전통 보수층 정서에 구애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 의뢰로 18~22일 전국 18세 이상 2천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36.3%로 집계됐으며 전통 지지층인 보수층에서 6.1%의 큰 하락 폭을 보였다.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찬에 배석한 이관섭 실장은 대구·경북(TK) 출신으로, 그간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간 만남을 주선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에 관저에서 대통령실 참모진들과 송년회를 겸해 김대기 비서실장 송별 만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송원기 기자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남국 의원

與 “코인 전업 투자자” 김남국, 세비 반납하고 석고대죄해야”

국민의힘은 30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 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에서 무소속 김

남국 의원의 총 거래액이 1천118억원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 “김 의원이 세비를 반납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전업 투자자 면모를 보인 김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부업 정도로 생각했던 것도 모자라 끝까지 거짓으로 일관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상근부대변인은 “김 의원은 법원의 강제 조정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고 ‘정치적 책임을졌다’는 뱉뻔함을 보였다”며 “끌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국민 기만을 멈추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는 “가짜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불출마를 선언한다고 해서 이를 덮을 수 있는가”라며 “김남국 코인 사태는 ‘친명’(친이재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온정주의에 사로잡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 민주당의 도덕적 파산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꼬집었다.

신 상근부대변인은 또 “겉으로 반성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이 무얼 그리 잘못했느냐는 식의 억울함을 토해내는 김 의원의 안하무인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이것이 민주당이 자처하는 도덕 정당, 윤리 정당의 모습인가”라고 쏘아붙였다.

/ 박민준 기자

보훈부 “이승만, 대통령 아닌 독립운동가 공적 평가했다”

이승만 ‘1월의 독립운동가’ 선정…독립운동 공적 명확하나 부정선거 과오

국가보훈부는 이승만(1875~1965) 전 대통령을 2024년 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보훈부가 1992년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하기 시작한 지 32년 만에, 464번째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이 전 대통령이 선정된 것이다.

보훈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 기념사업회 등에서 추천받아 연말에 다음 해 1~12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미리 선정해놓는다.

올해도 총 256명의 후보를 추천받아 보훈부·광복회·독립기념관·근현대사 전공 학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해 38명을 내년에 매달 발표될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보훈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0여년 동안 이달의 독립운동가 후보로 추천받지 못하다가 올해 이승만기념사업회가 처음으로 추천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기도 했던 이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 공적은 명백한데도 30년 넘게 추천이 없었던 것은 1948년 정부 수립 후 대통령 재임 기간의 과오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훈부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 공적에는 흠결이 없다”면서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 과정에선 대통령 재임 기간의 공적이 아닌 독립운동가로서의 공적을 평가한다”며 이 전 대통령이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배경을 설명했다.

보훈부에 따르면 1875년 황해도 평산에서 태어난 이승만 전 대통령은 1895년 배재학당에 입학해 자유와 평등 등 근대적 정치사상을 배웠고, 1899년 고종폐위

음모사건에 연루돼 한성감옥에 투옥돼서는 제국신문에 논설을 기고하며 독립정신을 전파했다.

이후 미국에서 존 헤이 미 국무장관을 만나 한국의 독립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미 대통령이었던 시어도어 루스벨트에게는 한국 독립보전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1919년부터 1925년까지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활동했으며, 1932년에는 임시정부로부터 국제연맹에서 한 국독립을 탄원할 특명전권대사에 임명됐다.

이와 관련해 이달 박민식 당시 보훈부 장관은 ‘이승만 전 대통령 등 역사적 논쟁이 있는 인물을 선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장관이 마음대로 할 사안이 아니라 선정위원회 등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 최정민 기자



이승만 전 대통령

한미동맹의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도 있지만, 6·25전쟁 중 한강 인도교 폭파와 사사오입 개헌, 3·15 부정선거 등 과(過)적 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이달 20일 박민식 당시 보훈부 장관은 ‘이승만 전 대통령 등 역사적 논쟁이 있는 인물을 선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장관이 마음대로 할 사안이 아니라 선정위원회 등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백현동 수사무마’ 총경출신 변호사에

소개비 받은 경찰 대기발령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으로 구속된 총경(경찰서장급) 출신 곽경기 변호사(50·사법연수원 33기)에게 사건을 소개해주고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이 대기 발령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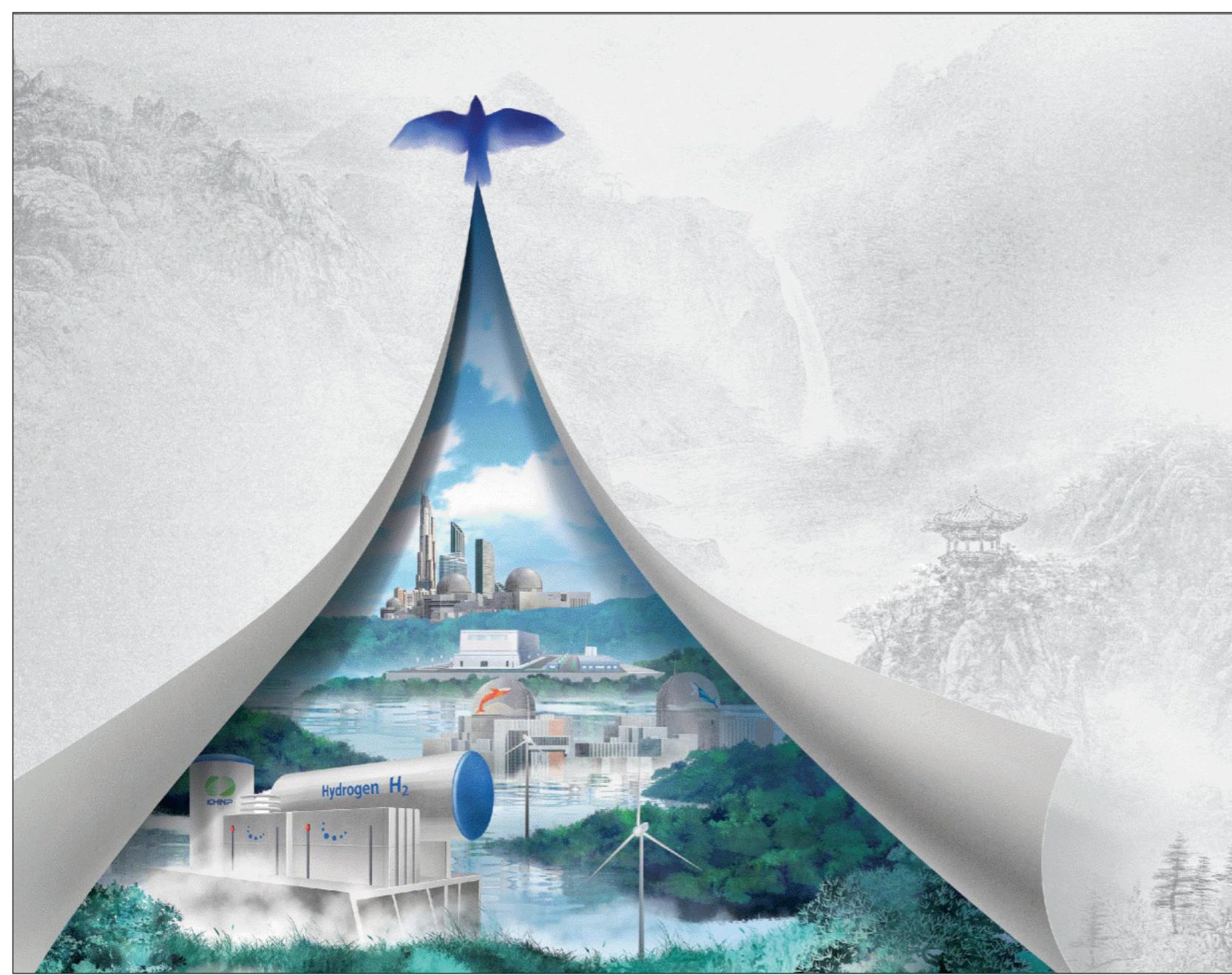
서울 수서경찰서는 검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박모 경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경감은 경찰의 백현동 개발 버리 관련 사건 수사 당시 정바울 아시디벨로퍼 회장 사건을 곽 전 총경에게 소개해주고 4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곽 전 총경은 지난해 6~7월 정 회장으로부터 수임료 7억원을 받고 공무원 교육·첨탁 용도로 현금 5천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 허유찬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주



탄소중립 시대 새로운 내일을 열어갑니다

- 미래의 에너지 솔루션 소형모듈원자로 (SMR)
-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APR1400
- 탄소배출 제로 대용량 수소 생산
- 해외에서 입증된 기술력 원전수출 사업 확대

‘결혼·출산 포기’ 대전 전세사기 1년…피해복구는 ‘제자리걸음’

피해자 86% 20~30대, “전세사기는 한 사람 미래 뺏는 사회적 재난”

을 한 해 대전 지역 전세사기 피해는 인구 규모 대비 인천시 다음으로 발생률이 높았다. 전국에서 1인 가구 비율(38.5%)과 다가구주택 비율(33.5%)이 가장 높은 대전은 다른 지역보다도 전세사기 범행에 취약했다.

지난해 말 전직 방송기자와 부동산 법인 관계자가 연루된 325억원 상당의 깡통 오피스텔 전세사기를 시작으로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가 1년 동안 연이어 터져 나왔다. 6개월 전인 지난 6월에는 50대 피해자가 ‘돈 받기는 틀렸다’고 말한 뒤 극단 선택을 하기도 했다.

피해자 중 86%가 20~30대로, 지역의 많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들이 절망에 빠졌다. 지역 피해가 겉잡을 수 없이 커지자 피해자들은 지난 7월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를 출범시키고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다.

여아가 합심해 지난 5월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킨 지 반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의 현주소는 ‘제자리걸음’이다.

국토부에서 인정한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난 19일 기준 899명이다. 피해 접수는 1천400건을 넘어서었다. 대책위에서 파악한 지역 내 피해자 수는 3천300여 명, 피해 금액은 4천억원에 육박한다.

지난 10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까지 속고 피해 규모만 3천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역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김모(49岁)는 LH의 전세 지원 제도를 악용해 159억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본청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막히고 있다.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이미 재판받고 있다. 대전경찰청에서 송치했거나 수사 중인 지역 전세사기 관련 피해금만 1천 500억원에 달하고 관련 피해자도 1천370여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차 계약이 아직 남은 잠재적 피해자까지 합친다면 피해 규모는 어마어마할 것이다란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부푼 꿈을 안고 대전에 자리 잡았던 사회초년생들과 신혼부부 피해자들은 ‘쓰리 잡’을 하거나 원양어선에 몸을 싣는 등 힘겹게 삶을 버티고 있다.

피해자들이 빚을 갚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극단 선택을 했던 50대 피해자의 임대인이었던 남모(48岁)와 일가족은 지난 5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남씨는 남편과 초

등학생 아들과 함께 근교 고급 주택에 살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갔다.

경찰은 여권 효력 중지와 적색수배 등 인터폴 공조를 통해 미국에 있는 남씨 검거에 나섰지만 행방은 묘연한 상황이다.

지난 10월에는 4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대구에서 퇴직을 앞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투자

강연을 벌인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피해자들의 분노는 금융권으로도 향했다. 전세사기 피해 건물의 36.5%가 모두

대전 지역 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해자들은 금융권의 과잉대출이 전세사기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전세사기 혐의로 송치된 한 건설

사 대표의 가족이 이 새마을금고 임원으

로 재직하고 있던 점에서 대출 과정에서

의 공모 의혹도 제기됐다.

해당 임원은 최근에 내부 감사에서 해당 의혹과는 별개로 다른 비위가 발견되면서 면직처분을 받았다. 최근에는 3천억 원 규모 전세사기 피의자인 김씨의 부동산 법인회사 직원으로부터 ‘김씨가’ 금융권 인사와 지속해서 내용했다는 내부고발이 나오면서 금융권 연루 의혹에 불씨를 지피고 있다.

전세사기특별법과 피해자 지원 대책에 대한 실효성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대전의 전세사기는 타지역과는 달리 피해 건물 95% 이상이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으로, 거주주택 경·공매 유예 및 정지, 피해보증 우선 매수권 부여 등 현 특별법 혜택조차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내놓은 지원책 중 하나인 LH

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과 매입임대 전환도 지난달 기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긴급거주 대책 또한 대전은 부동산

공급 부족으로 LH 임대조차 부족하기 때

문에 긴급거주 공간을 찾기가 힘들다.

여야는 6개월마다 특별법 보완 입법을 하기로 했으나 대립 끝에 이달 초 개정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지난 28일

야당에서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피해자의 피해액을

먼저 보상한 뒤 추후 경매 등을 통해 회수

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제일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노경우 기자



군, 이달 중순 비공개로 독도 방어 훈련 尹정부 들어 네번째

군 당국이 이달 중순 독도방어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군의 한 관계자는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이달 중순에 실시했다”며 “영토와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해 정례적으로 이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매년 두 차례 독도 인근에서 실시하는 독도방어훈련을 ‘동해영토수호 훈련’이라고 부른다.

이번 훈련은 지난 7월에 실시된 독도방어훈련과 유사한 규모로 진행됐다. 해군과 해경 함정이 참여했으며, 해병대 병력의 독도 상륙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독도방어훈련은 이

번이 네 번째이며, 앞선 세 차례 훈련도 비공개로 진행됐다.

과거 군 당국은 공군 전투기와 해병대 상륙 병력까지 동원하고 사전에 훈련 계획을 알리면서, 공개적으로 비교적 큰 규모로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한 적도 있다.

/ 양희진 기자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는 매번 소규모로 실시하면서 언론에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있다.

독도방어훈련은 1986년 처음 시행됐고, 2003년 이후에는 매년 두 차례로 나눠 정례적으로 시행됐다.

일본 정부는 우리 군이 독도방어훈련을 할 때마다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번 훈련에 대해서도 외교부 채널로 항의해 왔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공개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측은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측의 동해 영토수호훈련에 대해 항의해 왔으나, 우리는 이를 일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 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 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양희진 기자

기재부 떠난 추경호…“친정서 일해 행복했다” 큰절 인사



직원들 인사에 답하는 추경호 부총리

에는 200여명의 기재부 직원이 모여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추 부총리와 인사를 나눴다.

무대 중앙에는 ‘달성FC’ 유니폼을 입고 3개의 선이 그려진 ‘삼선’ 슬리퍼를 양 손에 들고 ‘삼선’ 축구공을 드리블하는 추 부총리의 합성 사진도 등장했다. 내년 국회의원 ‘3선’에 도전하는 추 부총리의 선전을 응원한 것이라는 후문이다. 로비 양 옆으로는 각 실·국별로 준비한 대형 플래카드가 걸렸다. 플래카드에는 ‘우리의 도 또 추경호’, ‘따뜻한 동행,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등의 인사말이 담겼다.

추 부총리는 “이제 여러분 곁을 떠나 다시 민생의 바다로 간다”라며 “눈살 푸리게 하지 않고 국민 사랑과 신뢰받는 정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임사를 마친 추 부총리는 직원들을 향한 큰 절로 감사 인사를 마무리했고 직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 강진욱 기자

노태액 선관위원장 “국민 모두 신뢰하는 선거 만들 것”

“부정선거 의혹에 선거 본연 기능 위협 염려 선거 절차 더욱 투명하게 공개”

노태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총선이 열리는 2024년 신년사에서 “정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해 국민 모두가 선거 결과를 신뢰하는 통합과 화합의 선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내년 4월 총선을 언급,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며 “선거를 통해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과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최근 심화된 정치 양극화와 확증편향 현상에 부정선거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선거 불복 조장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분위기로 선거 본연의 기능이 위협받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 선거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며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투표해 그 뜻이 선거 결과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확한 투·개표 관리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과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들도 신뢰와 존중, 승복과 화합의 성숙한 선거문화를 만들어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노 위원장은 ‘고위직 간부 자녀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해 “지난 한 해 선관위는 빠아픈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며 “한 골탕태하는 현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의 필사적인 노력도 쏟았다”고 언급했다.

/ 유현주 기자

**이렇게 똑똑한 금융
이렇게 똑똑한 금융
이렇게 똑똑한 금융**

**이토록 트렌디한 그룹
이토록 트렌디한 그룹
이토록 트렌디한 그룹**

**더나은 내일
더나은 내일
더나은 내일**

DGB금융지주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DGB금융지주 DGB

민주 “尹, 기댈 곳 ‘박근혜 지지’ 태극기 아스팔트 부대뿐인가”

‘朴 초청 오찬’ 비난…“보수결집으로 쌍특검 돌파하려 하면 국민 분노 폭발할 것”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저에서 오찬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관저로 초청해 오찬한 것을 두고 “기댈 곳은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태극기 아스팔트 부대뿐이니”라고 비난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10월 이후 벌써 세 번째 회동으로, 위기에 처하면 박 전 대통령에게 손을 벌리는 대통령의 모습에 한숨만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과 정의를 외쳐 당선된 윤 대통령은 어떻게 자신이 수사했던 피의자에게 변변히 고개를 숙이며 도움을 읊소하

나”라며 “이것이 법과 정의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지지율이 급락할 때마다 보수층 결집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행태는 한심함 그 자체”라며 “새해 연하장에서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한 것이 태극기 부대의 심기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임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기아코 보수층 결집으로 ‘쌍특검법’ 정국을 강행 돌파하려고 한다면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 송원기 기자



국민의힘 천하람, 탈당 회견

천하람, 이준석 신당 합류 “합류 의사 與 현역의원 있어”

“지역주의 타파, 호남·영남서
강하게 도전”

다.

그는 “순천 지역구를 지키며 ‘이준석 없는 국민의힘’에서 개혁 소장파로 승승장구하면 잠시 편안할 수 있지만 조용히 시들어가는 길 아닌가 생각한다”며 “당내 개혁이 혼자만의 힘으로 하는 건 아닌데, 지금 국민의힘에 개혁 소장파로 투쟁과 실질적 변화를 이끌 사람이 원내든 원외든 얼마나 남아 있나”라고 반문했다.

천 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며 “앞으로 가칭 개혁신당의 청당준비위원장을 맡아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구 출신인 그는 보수정당 불모지인 호남에서 총선에 도전한 당내 개혁 성향 소장파 정치인이다. 지난 3·8 전당대회 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그는 “단기간 내에 국민의힘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판단했다”며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일은 필요성이 큰 것은 물론, 성공할 가능성도 높다”고 결단 배경을 설명했다.

/ 양민혁 기자

한동훈 “공공선 명분지키며 이기겠다…내부 궁중암투 말자”

野 쌍특검 처리 겨냥 “똘똘 뭉쳐 총선용 악법 통과에도 부끄러움 못 느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우리 사회에 격이 맞는 명분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이기겠다는 우리의 결심이 오히려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는 동료 시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기기 위해 모였지만, 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전력을 다 동원하겠지만, 그럼에도 한 발은 반드시 ‘공공선’이라는 명분과 원칙에서 떼지 않겠다는 약속, ‘피봇플레이’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발을 고정한 채 나머지 발은 방향을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회전해서 던지는 농구의 ‘피봇플레이’에 빗대 앞으로의 당 운영 원칙을 밝힌 것이다. 한 위원장은 “농구의 피봇플레이에는 한 발을 지탱하고 다른 발을 움직여야지, 두 발 다 움직이면 반칙”이라며 “두발 다 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플레이하면 민주당과 다를 게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전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을 강행 처리한 것을 겨냥해선 “우리는 소수당이고 우리의 상대는 똘똘 뭉쳐 있다”며 “똘똘 뭉쳐 총선용 악법을 통과시키는 것에도 부끄러움을 못 느낀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돼 있고, 우리끼리 내부 권력에 암투할 시간과 에너지는 없다”며 “그럼 시간과 에너지로 동료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설명하고 상대 당의 왜곡·선동에 맞서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내부에서 궁중 암투나 합종연횡하듯이 사극을 찍고 삼국지 정치를 하지 말자”며 “사극은 어차피 늘 최수종 것이고, 제갈량은 결국 죽다”고 말했다.

/ 노승만 기자

‘노인비하’ 민경우, 與비대위원 사퇴…‘한동훈 비대위’ 첫 사례

“노인네들 너무 오래 살아” 등 과거 발언 논란에 임명 하루 만에 물러나

해외 식민지를 개척했다’고 언급했고, 올해 2월 유튜브에서는 다양성을 설명하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막무가내로 개긴다.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도 막무가내로 개긴다. 이것도 다양성으로 인정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라 나왔다.

이 중 일본 관련 발언은 당 미디어룸 단이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가 틀린 오보”라며 “법적 조치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 전 위원은 과거 주사파 학생 운동권에서 활동하다 전향해 운동권 정치 청산을 주창한 이력으로 비대위원에 임명됐다.

한 위원장은 첫 비대위 회의에서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에 앞장설 분”이라고 그를 소개한 바 있다.

민 전 위원의 사퇴로 한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됐던 비대위는 출범 하루 만에 10명으로 줄었다.

/ 박재훈 기자



발언하는 민경우 비대위원

전날 비대위 첫 회의에서도 “386 세대가 나이와 지위로 젊은 세대의 진입을 막는 사회적 현상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실수였다”며 재차 사과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대한노인회는 민 전 위원의 사퇴를 요구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과의 뜻도 전달하기도 했다.

이 발언뿐 아니라 민 전 위원의 과거 유튜브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유튜브에서 일본의 조선

식민 지배에 대해 ‘우수한 제국 청년들이

이준석, ‘제갈량 결국 죽다’는 한동훈에 “나는 제갈량 동경”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나는 주저 없이 제갈량의 삶을 동경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가칭 ‘개혁신당’ 창당을 선언한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갈량이 살던 방향으로 살고 싶냐, 동탁과 여포같이 살고 싶냐 묻는다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이 이날 첫 비대위 회의에서 “내부에서 궁중 암투나 합종연횡하듯이 사극을 찍고 삼국지 정치를 하지 말자. 제갈량은 결국 죽다”고 한 발언을 받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대표는 “어차피 여포는 동탁 죄를 짓다. 아주 횡당한 사건으로”라고 했다.

그는 또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제대로 공부해 보면 아테네를 시기해서 스파르타가 그리스 내에서 패싸움 벌이다가

/ 권도진 기자



창당 선언하는 이준석

마케도니아 좋은 일 시켜주는 결론이 난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알렉산더로 만들고 싶은 게 아니면 역사 공부 똑바로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권도진 기자

**KB Pay로 결제되나요?
됩니다!**

다 되는 페이
KB Pay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금융그룹 | 국민의 편에서 금융파트너

준법감시인심의필 제 230609-02066-ADP (23.06.09)

KB국민카드

'보복운전' 민주당 이경 "9천700곳 대리기사 업체 찾겠다"

대리운전기사연합회 "대리기사를 범죄자 단정 지은 폭력" 사과 요구

보복 운전 혐의로 별금형이 선고돼 더 불어민주당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이 29일 사건 당시 대리기사를 찾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리기사님을 찾는다"면서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죄선을 다하겠다"며 "내일부터 9천700곳이나 되는 대리기사 업체를 모두 찾아가기 시작한다"고 적었다. 이 전 부대변인은 국회 앞 대로변에



이경
정견 발표하는 이경

이러한 내용의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12

일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 등을 켜자 불만을 품어 상대방 차량 앞에서 여러 차례 급제동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대변인은 법정에서 사건 당시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 총선 충양당 겸증위원회는 범

죄 경력을 이유로 이 전 부대변인에게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 전 부대변인의 입장이 알려지자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는 '사회적 약자인 대리운전기사들을 모욕하지 말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 "대리운전기사가 보복 운전을 했다는 확실하지도 않은 공개적 비판은 대리운전기사들을 범죄자로 단정 지었다고 볼 수 있어 명백한 폭력이며 인권 유린"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 송진영 기자

경찰, 서이초 사건 관련 의혹 글 게시한

현직교사 소환조사



이어지는 추모의 발길

경찰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관련 의혹 글을 인터넷에 쓴 현직 교사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A씨를 지난 28 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30 일 밝혔다.

현직 교사로 알려진 A씨는 지난 7월 20 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른바 서이초 '연필 사건'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필 사건'은 지난 7월 12일 고인이 맡던 학급의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학부모들이 고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고인

이 괴로움을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인은 7월 18일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고인의 죽음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폭행, 협박 등 범죄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연필 사건' 학부모가 누리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지난달 기준 총 40건을 확인해 13명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 중 다른 경찰서 관내 주소지를 둔 10명에 대해서는 사건을 이첩하고,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25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고소 내용 및 피고소인의 신원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 이준호 기자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항소 기각

2월 15일까지 구금 확정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법원의 구금 연장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당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9일(현지 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권도형 변호인이 제기한 구금 연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 구금 기간을 2개월 더 연장 했다"며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도주 우려가 있고, 피고인이 아직 범죄인 인도 요청국 중 어느 국가에도 인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법원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서 제시한 이유를 받아들여 권도형 변호인의 항소를 이유 없는 것으로 보고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권씨는 내년 2월 15일까지 몬테네그로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송환 절차를 기다리게 됐다. 앞서 권씨는 지난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이에 대해서는 권씨의 신병을 인도하라는 기존 결정에 근거가 불분명하고 절차적 문제



법정에 나타난 권도형

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의 범죄인 인도 여부를 재심리하게 됐다. 재심리 결과는 권씨의 신병이 확보된 내년 2월 15일 이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신병 이송 결정을 유지할 경우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권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로 송환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다. 지난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 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권씨는 지난 3월 몬테네그로에서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검거됐다.

/ 신형석 기자



대우건설 플랜트사업본부장이 석방된 직원들을 만나 열싸안고 있다.

대우건설 "나이지리아 피랍직원 모두 건강...빠른 일정으로 귀국"

대우건설은 30일 직원 2명이 나이지리아에서 피랍됐다 17일 만에 석방된 것과 관련, "현재 피랍 직원 모두 건강한 상태이며 현지에서 절차를 밟아 최대한 빠른 일정으로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이날 연합뉴스에 "피랍 직원의 안전한 석방을 위해 모든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대한민국 정부와 나이지리아 정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우건설 직원 2명은 지난 12일 오전 10시(현지시간) 나이지리아 바이엘

사 주에 있는 바란 인필 석유화학 플랜트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무장세력에 의해 납치됐다.

이에 대우건설은 플랜트사업본부장을 현지로 급파하고, 본사와 현지에 24시간 비상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공식·비공식 라인을 통해 사태 해결을 위해 대응해왔다.

대우건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지 보안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더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남희철 기자

이달 들어 전국 빈대 다시 늘었다…'가정 내 발견' 최다

이달 들어 전국에서 빈대 발생 건수가 조금씩 늘고 있다.

발생 장소로 보면 가정이 고시원 같은 디중이용시설들을 제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30일 질병관리청 등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달 18~24일 지방자치단체 등에는 총 73건의 빈대 신고가 들어왔다.

이 가운데 실제 빈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건은 47건이다.

질병청 통계 사이트를 보면 전국 빈대 발생 건수는 11월 13~19일에 55건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11월 27~12월 3일에 28건까지 줄었으나, 이후 33건, 46건, 47건으로 매주 조금씩 늘고 있다.

정부는 종전까지는 민간업체의 접수 건수를 따로 집계했으나, 중복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정부 접수 건수로만 통계

를 내기로 했다.

질병청 통계 사이트에 공개된 11월 6일 이후의 빈대 발생 사례 299건 가운데 가정에서만 115건(38.5%)이 나왔다. 고시원(84건)이 바로 뒤를 이었다.

질병청 관계자는 "현재 발생 장소 구분을 11개로 세분화했기 때문에 빈대에 관심이 큰 가정집의 신고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발생률도 높은 것으로 본다"며 "이에 따라 가정에서 빈대를 발견했을 때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가정에서 빈대를 발견했다면 스팀 청소기 등으로 고열을 분사하거나 청소기로 뺏아들여야 한다. 침대보 등 오염된 직물은 건조기로 30분 이상 돌리는 것이 좋다.

/ 한수진 기자

미래는 오지 않는다

"Hello,
미래!"

기다리기만 한다면
준비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힘이 될 미래산업
KDB산업은행이
키워가겠습니다

내일이 보고 싶다면 KDB산업은행

우크라, 개전후 최대공습에 200명 사상 참사…푸틴 의도는

미사일·자폭드론에 곳곳 피해…‘우크라 저항의지 꺾으려는 노림수’ 관측

2023년의 끝이 이틀여 앞으로 다가온 29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등을 겨냥해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공습을 감행했다.

미사일만 무려 120여발이 동원된 공세에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러시아군이 최전선이 아닌 군사적 가치가 크지 않은 후방 도시들을 노린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내부부는 성명을 내고 수시간 동안 이어진 이날 공습으로 최소 30명이 숨지고 16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다.



지하철로 몸을 피한 키이우 시민들

든 목표물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이날 발생한 민간인 피해가 모두 우크라이나 측이 방공 체계를 잘못 운용한 탓에 생긴 사고이며 러시아군은 민간 시설을 겨냥한 적이 없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러시아 측의 주장을 곧이 곧대로 믿는 국가는 많지 않아 보인다.

작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기습적으로 침공한 이후 이미 여러 차례 우크라이나의 민간시설을 겨냥하거나, 민간인 피해를 고려 않고 정밀도가 떨어지는 무기

를 마구 쏘아댄 전력이 있어서다.

예컨대 러시아는 작년 겨울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역의 전력 기반시설을 표적 공습해 정전을 유발, 우크라이나인들이 추위와 공포에 시달리게 한 바 있다.

이후 서방이 패트리엇 미사일 등을 지원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대공 방어 체계를

대폭 강화했지만, 이날도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에선 전력 기반시설이 망가져 광범위한 정전이 발생했다고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OCHA)은 밝혔다.

OCHA는 “어마어마한 공습으로 수백만 명이 겨울밤에 대피소로 피해야 했으며 우크라이나 대부분 지역에서 파괴와 죽음이 잇따랐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

러시아 미사일 중 일부는 우크라이나 접경국이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영공을 침범해 한때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치에이 클리시 폴란드군 작전사령관은 러시아군이 발사한 미사일 중 하나가 폴란드 영공에 들어왔다가 약 3분 만에 우크라이나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안보기관 수장들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옌스 스톤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도 통화했다. 폴란드 외무부는 자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등의 요구로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도 러시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거셌다고 워싱턴포스트(WP)와 AP 통신 등 외신은 전했다.

회의에서 모하메드 키아리 유엔 사무총장보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도시와 마을들을 겨냥한 오늘의 끔찍한 공격을 가능한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명백히 규탄한다”면서 “민간인과 민간시설에 대한 공격은 국제인도법 위반으로 용납될 수 없으며 즉각 멈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은 회의가 끝난 뒤에도 러시아에 대한 규탄을 이어갔다.

바버라 우드워드 주유엔 영국 대사는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 전쟁) 동력을 되찾으려는 러시아의 필사적이고 헛된 시도였다”면서 “그들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시들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던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다시 힘이 실릴 조짐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전쟁이 2년 가까이 지속됐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극명히 드러났다”면서 공화당에 발목이 잡혀 의회에 계류 중인 우크라이나 원조 추가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 최형민 기자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시민들

카타르 “하마스, 인질석방·휴전협상 재개에 원칙적 합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인질 40여명을 석방하고 이스라엘과 최장 한 달간 휴전한다는 합의안과 관련한 협상을 재개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앤시오스는 29일(현지시간) 복수의 이스라엘 정부 당국자를 인용, 하마스와의 협상을 중재해 온 카타르가 이스라엘 측에 이같은 상황을 전달해 왔다고 보도했다.

다면 이스라엘 정부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면서 주말 사이 하마스의 진의와 관련해 더 구체적인 정보가 전달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하마스는 이달 초 7일간의 휴전이 종료된 이후 이스라엘이 전쟁을 멈추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군대를 물리지 않는 한 인질 추가석방과 관련해 어떠한 진지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또 다른 이스라엘 당국자는 아직 구체적인 제안을 전달받지는 못 했다면서 “어떤 경우든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다”고 말했다.

/ 권정석 기자

미 공화주자들, 트럼프 경선자격 박탈 반발…“순교자 만들뿐”

디샌티스 “판도라 상자 열려”…헤일리 “공정하게 승리할 것”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주지들은 29일(현지시간) 콜로라도에 이어 메인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 데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 반(反)트럼프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온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는 이날 CNN에 출연해 “이 같은 결정은 트럼프를 순교자로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주의 경선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앞서 메인주 최고 선거관리자인 세나 벨로즈 주(州) 총무장관은 전날 서면 결정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 의회 난입 사태에 가담했다는 점을 들어 출마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벨로즈 장관은 “나는 어떤 어떠한 총무장관도 수정헌법 14조 3항에 근거해 대통령 후보의 투표 접근권을 박탈한 점이 없다는 것을 유념하고 있다”며 “그러나 또한 과거 어느 대통령 후보도 반란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직 피선거권을 박탈한 데 이어 나온 두 번째 결정이다.

두 결정 모두 수정헌법 14조 3항을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조항은 헌법을 지지하라고 맹세했던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못박았다.

/ 배영준 기자



도쿄올림픽 출전한 세르게이 비다

르고 있다.

이와 관련, 올림픽 소식을 전하는 ‘인사이드 더 게임스’는 지난 6월 30일 비다 부부가 미국으로 이주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으며 비다는 미국 펜싱 대회 참가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 황순길 기자

미국으로 떠난 러 군인 펜싱 국가대표 ‘반역’ 논란

러시아 펜싱 국가대표 부부가 미국으로 도피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군에 소속된 신분으로 나라를 떠나 ‘반역죄’까지 거론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스포르트 익스프레스 등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2020 도쿄올림픽 펜싱 애페 남자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딴 세르게이 비다와 역시 펜싱 국가대표인 그의 아내 비올레타도 펜싱 국가대표로 활동하며 미국 대표팀 합류 기회를 염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다는 2024 파리올림픽 출전을 희망했다는 보도도 잇따

르고 있다.

이와 관련, 올림픽 소식을 전하는 ‘인사이드 더 게임스’는 지난 6월 30일 비다 부부가 미국으로 이주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으며 비다는 미국 펜싱 대회 참가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 황순길 기자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연금, 처음부터 제대로
NH투자증권 연금**

처음부터 제대로 관리받자

연금정산 세액공제엔 연금이 필수인 거 아시죠?
세액공제는 물론 연금수익률까지!
NH투자증권 연금으로 처음부터 제대로 관리받으세요.

... 퇴직연금 ... 연금저축 ... IRP

NH투자증권

[투자 유의사항]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종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의견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자가기적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연금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전 종료하지 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험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보호 한도는 개인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쳐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QV IRP에서는 퇴직금에 대한 운용·자산관리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연봉, 상세 수수료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ETF/리츠 매매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나 보수가 초기로 투자, 분할이 되거나

일상을 플랫폼하다



LG유플러스 4대 플랫폼

초개인화된 맞춤형 통신 경험을 제공하는

라이프스타일 플랫폼_너겟

축구, 야구, 골프 등 모든 스포츠 팬을 위한

놀이 플랫폼_스포키

아이의 배움습관을 키우는 국내 최초 맞춤 교육 서비스,

성장케어 플랫폼_아이들나라

메타버스 공간에서 AI친구와 실감나게 체험하며 학습하는

Web 3.0 플랫폼_키즈토피아

LG유플러스의 4대 플랫폼이
모두의 일상을 원더풀하게 바꿉니다



포스코회장 인선 제동 건 국민연금…사실상 최정우 3연임에 반기

국민연금, 투명성·공정성 문제제기…KT사태 데자뷔?

국민연금이 언론을 통해 포스코그룹의 차기 회장 선출 절차에 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재의 CEO 후보 추천 위원회 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인선을 위한 CEO 후보 추천위를 겨냥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회장 선임 절차가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제동을 걸어 차기 회장 선출을 원점에서 재시작해야 했던 ‘KT 사태’를 거론하면서 “주주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내·외부인 차별 없는 공평한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에 따르면 이 같은 국민연금의 문제 제기는 현 최정우 회장 체제에서 만들 어진 차기 회장 선출 방법과 절차 전반에 대한 ‘비托’ 성격으로 해석된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기준 포스코홀딩스 지분 6.71%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다. 앞서 포스코그룹의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21일 CEO후보 추천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내년 2월 중순 차기 회장 최종 후보 1명을 압축하겠다고 밝혔다.

7인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CEO 후보 추천위가 ‘회장후보인선 자문단’의 평가 결과를 참고해 내·외부에서 차기 회장 후보군을 뽑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목이 쏠렸던 최정

ssion
ng-Woo CHOI
POSCO Holdings,
worldsteel



기조연설하는 최정우 회장

우 회장의 향후 거취와 관련, 최 회장의 침묵 속에 ‘3연임 도전’을 기정사실로 했다. 이는 CEO 후보 추천위를 구성하는 사외이사들이 최 회장 재임 중 선임됐거나 연임됐다는 사실과도 맞닿아 있다.

최 회장 체제에서 임명된 사외이사들 인 만큼, 최 회장의 3연임을 지지하거나 최 회장과 연계된 인물로 차기 회장을 선임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나왔다.

여기에 CEO 후보 추천위가 ‘롱리스트’와 ‘숏리스트’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참고하겠다고 밝힌 회장후보인선 자문단의 구성과 자격 요건 등이 ‘깜깜이’인 점도 국민연금 측의 문제 제기에 힘을 실었다.

사외이사들과 마찬가지로 자문단 구성 역시 최 회장 체제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문단 구성 관련 실무는 포

스코그룹 내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자문단 구성 과정과 기준 등에 대해서는 외부에 알려진 바가 없다.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현재 포스코그룹의 차기 회장 인선 과정에 대해 분명히 반기를 든 만큼, 향후 CEO 후보 추천위를 중심으로 한 인선 기능이 훤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까지 CEO 후보 추천위 측은

국민연금의 이의제기에 흔들림 없이 정면으로 맞선 모양새다.

CEO 후보 추천위는 이날 오전 1시를 넘겨 기자들에게 “현 회장 지원 여부에 전혀 관계없이 포스코의 미래와 주주 이익을 위해 어느 누구에게도 편향 없이 냉정하고 엄중하게 심사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전했다.

이어 이날 오후에는 3차 회의를 열고 국내외 주요 주주들에게 ‘회장 후보 추천’을 요청하면서 CEO 후보 추천위의 공정

성과 투명성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1월 8일까지 주요 주주들과 국내외 헤드헌팅(서치펌) 회사들의 추천을 받은 뒤 같은 달 중순까지 내·외부 롱리스트를 구성하고 인원수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CEO 후보 추천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의심하는 국민연금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재계 안팎에서는 포스코홀딩스가 지난해 KT의 경로를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이 거론한 KT는 포스코홀딩스와 마찬가지로 소유분산 기업이다.

KT는 지난해 말 국민연금의 반대 속에 CEO 선임을 두 차례나 뒤엎고 결국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은 채 차기 리더십 선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했다.

당시 KT이사회는 구현모 전 대표와 윤경립 전 KT그룹 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이 낙마한 이후 외부 공모 절차와 함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선 자문단을 운영해 사내외 후보를 검증했다.

결국 KT는 우여곡절 끝에 LG유플러스 출신인 김영섭 사장 체제를 맞았다.

다만, 포스코홀딩스의 경우 ‘KT 사태’ 때와는 달이 것이라 생각도 있다.

KT는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 외에도 현대차, 신한은행 등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있었지만 포스코홀딩스는 국민연금 외 5%를 넘긴 기관 투자자가 없다는 점에서도 포스코홀딩스의 소액주주 지분은 75.52%에 달한다.

/ 백현우 기자



국기에 경례하는 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

김홍일 방통위원장 “통신비와 OTT 요금 실태 살필 것”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29일 “통신

다.

김 위원장은 “재허가·재승인 제도와 소유 규제, 광고 규제 등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를 해소하겠다”며 “OTT 등에 대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발표한 2024년 신년사에서 내년 업무 중점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디지털 신산업 성장에 따라 발생 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이용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맞춤형 미디어 교육과 소외계

층 미디어 접근성 제고를 통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미디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히 청구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미디어의 혁신성장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

/ 강해성 기자

IBK기업은행

실력 있는
기업들이
자신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가장 진화된 금융으로
기업을 앞으로**

ESG, 기업승계, 경영 전반의 맞춤형 컨설팅
i-ONE JOB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M&A 증자 조선 지원
M&A 생태계 조성

식약처 “에스더몰, 일부 부당광고”…홍혜걸 “과도한 규제”

식약처 “일반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 효과 있는 것처럼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예스더(58)씨가 운영한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서 법령을 위반한 부당한 광고가 일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 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 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법령상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여씨는 이날 에스더몰 홈페이지



여예스더씨

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현재 구체적 위법 사안이 확정되거나 관할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황은 아니다”며 “고객 분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이라고 체인 서술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

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법령상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여씨는 이날 에스더몰 홈페이지

며 “상품정보와 분리된 방식의 광고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건강기능식품협회나 강남구청의 일관된 해석이었고, 다른 회사 소송에서 대법원 무죄판결이 내려진 적도 있는데 갑자기 다른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효능을 과장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입도 복구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식약처 전직 과장은 여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며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식약처는 이후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로도 접수됐다며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했다.

/ 정희성 기자

주유소 기름값 12주째 하락

경유 일간 1천400원대 진입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판매가격이 12주째 하락세를 보였다.

3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24~2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보다 5.9% 내린 1당 1천582.6원이었다. 전국 최고가 지역인 서울은 직전 주 대비 3.5% 하락한 1천658.6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3.1% 내린 1천533.1원으로 집계됐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1천

591.4원으로 가장 가격이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555.5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판매가격은 직전 주보다 9.4% 하락한 1천500.1원으로 집계됐다.

일간 단위로 보면 경유 가격은 지난 27일 자로 1천499.03원을 기록, 8월 5일(1천496.74원) 이후 약 5개월 만에 1천400원 대에 진입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예멘 후티 반군의 흥해 물류 위협과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심리 등에 상승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79.3 달러로 전주보다 배럴당 1.3달러 올랐다. 다만 국제 휘발유 가격은 0.2달러 내린 88.6달러, 자동차용 경유는 0.7달러 상승한 100.8달러였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주가량 지나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 신지호 기자

금융으로 세상을 놀라게
금융으로 세상을 놀라게



나의 오랜
무관심에 방치된
내 퇴직연금

먼 훗날 힘없이
쪼그라들지 않도록
구해줘! 퇴직연금



방치된 퇴직연금 수익률 향상을 위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신한투자증권과 함께하세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플트옵션)이란?

퇴직연금 DC·IRP 계좌에서 가입자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사전에 미리 정한 검증된 최선의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디플트옵션) 장점

퇴직연금 운용을 위한 시간, 관심이 부족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도 적립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되어
퇴직연금 장기수익률 제고를 돋습니다.

디플트옵션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기존 DC·IRP 가입자도 가입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퇴직연금 상담센터 1588-1122 | www.shinhansec.com

※ 고용노동부에서 승인받은 디플트옵션 상품 중 하나를 고객님이 사전지정상품으로 선정하시면 되며, 해당 제도의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에 문의 바랍니다.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퇴직연금(DC, IRP)은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연금계좌 계약기간 만료 전 종료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3-2176호(2023년 12월 14일~2024년 11월 30일)

오세훈 연말 약자동행…“서울시가 시청각장애인의 ‘설리번’”

시청각장애인 지원 간담회…헬렌켈러 언급하며 “세상밖 나오도록 행복 지원”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서울시가 헬렌켈러의 스승 설리번 역할을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종로구 연지동 ‘실로암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약속했다.

실로암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는 시각과 청각 기능을 동시에 상실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맞춤형 의사소통 교육과 정보 격차 해소 등 사회참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학습기관이다.

시는 2020년 실로암 센터의 문을 연 데 이어 올 7월 두 번째로 강남구에 ‘헬렌켈러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2개의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제주농아복지관 외에는 국내에 시청각장애인 지원기관이 거의 없어 서울 시내 두 곳의 센터에



오세훈 서울시장, 시청각장애인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

는 충청·전라도 등지에서 찾아오는 이용자도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 오 시장은 센터 시설을 돌아보고 학습지원센터 직원·시청각장애인 4명으로부터 보조공학기기를 활용한 재활과 자립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대화를 나눴다.

오 시장은 “시각과 청각의 이중 감각장

애가 있어 사회에서 고립되기 쉬운 시청각장애인분들이 더 이상 집안에만 고립돼 있지 않고 세상 밖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서울시가 헬렌 켈러의 스승이었던 설리번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이분들뿐만 아니라 어렵고 소외된 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세밀하게 살피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헬렌 켈러는 다종 장애를 극복하고 작가와 교육가, 사회사업가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시각과 청각 장애를 안고 살아가던 어린 헬렌 켈러에게 사물을 가르치고 희망을 제시해 빛의 세계로 인도한 특수교사 앤 설리번과의 일화는 널리 알려져 있다.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을 시정 비전으로 내세운 오 시장은 사회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약자와의 동행’을 주요 시정 운영방향으로 정해 정책과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서울시는 올 한해 취약계층을 위해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족방 주민에게 생활용품을 전달하는 ‘온기장고’, 실직·질병 등 위기 상황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시민을 신속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추위가 힘든 취약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 사업 등을 펼쳤다.

/ 송원기 기자

경기아트센터, 김선욱 예술감독 취임 기념 신년 음악회 개최

경기아트센터는 내년 1월 12일 센터 대극장에서 경기필하모닉의 새로운 상임지휘자 김선욱 예술감독의 취임을 기념해 신년 음악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신년 음악회 1부는 불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걸작 ‘피가로의 결혼’ 서곡으

로 서막을 연다.

김선욱 예술감독은 앞으로 경기필하모닉에서 펼쳐질 흥미진진한 나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에 걸맞은 분위기를 지닌 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보이는 작품은 러시아 작곡가

알렉산더 스크랴빈의 ‘피아노 협주곡’이다. 한동안 소행과 비슷한 음악 세계를 보였던 스크랴빈이 그와 구분되는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낸 시기에 작곡한 곡이다.

이 작품은 스크랴빈 피아노 작품집 연주로 주목받은 피아니스트 배건우가 협연한다.

2부에서는 요하네스 브람스의 ‘교향곡 제1번’ 공연이 이어진다.

이 곡은 브람스가 베토벤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긴 시간 공들인 첫 교향곡으로, 김선욱 예술감독은 이 작품의 작곡 배경이 요즘 자신의 상황과 잘 맞는다고 판단해 선곡했다고 한다.

이번 신년 음악회는 일찍이 전석 매진되며 많은 관객의 기대를 받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내년에도 공연 애호가는 물론 가족 단위의 관객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 문화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임지환 기자

터치 한 번이면 끝…강릉시, 킥보드 민원신고시스템 도입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간편한 신고로 교통 불편 해소



공유 킥보드 무단주차

강원 강릉시는 인도나 도로에 무단 방치된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로 끌미암은 시민 불편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증진하고자 시민 민원신고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 임현수 기자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 최종 승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공사 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28일 대광이엔씨·대광 건영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명령 청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21년 대광이엔씨·대광건설, 제이에스글로벌 등 건설사들이 지은 3천 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개 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이들 건설사가 2019년부터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20m 이상 높이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는 등 문화재보호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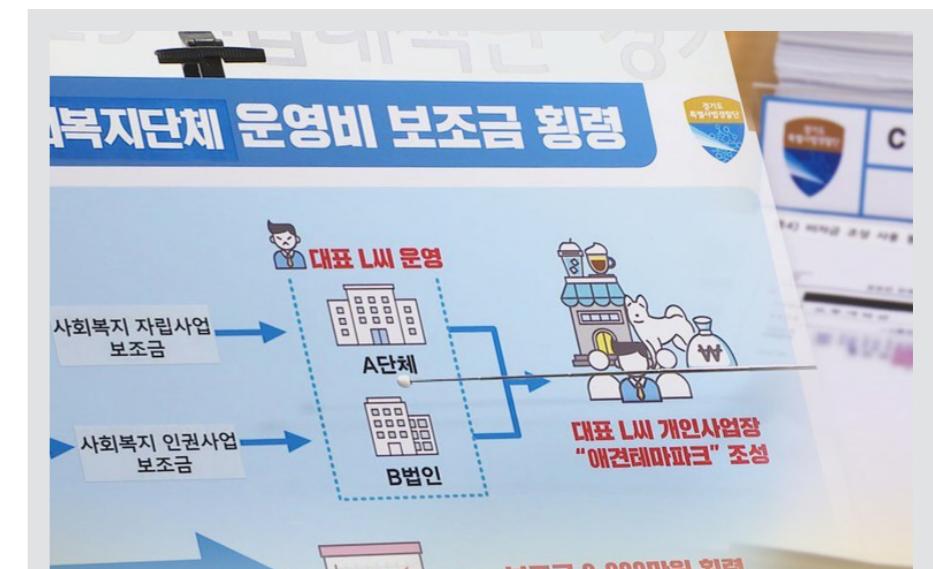


2021년 9월 30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 전방에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이 보인다.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법원이 공사 중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시켜 달라는 건설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현재 해당 아파트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다.

/ 이석준 기자



국고보조사업 허위공시 시정명령

어기면 보조금 최대 50% 삭감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업자가 허위·지연 공시에 따른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게 된다.

보조금관리위원회, 5개 국고보조금 하위지침 개정안 의결

기획재정부는 제4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고보조금 관련 5개 하위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의결 안건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등이다.

개정 지침에는 경영·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사업 수행 관련 법령 위반 이력을 고려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 황수진 기자



퇴직연금을 건강하게
하나연금닥터



연금을 이전하라

퇴직연금 정밀진단부터 상시 상담관리까지
연말 정산도 역시 **하나연금닥터**



2023년 고용노동부 주관
※ 전체종합평가 상위 10% 사업자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우수사업자 선정

하나은행

※하나연금닥터는 하나금융그룹 퇴직연금 전문 브랜드입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퇴직연금 홈페이지(<http://pension.hanabank.com>), 모바일앱(하나1Q)을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퇴직연금 전용고객센터 1599-2080[운영시간(영업일 09:00~18:00)]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 바랍니다.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합니다. ※본 홍보물은 2024년 5월 27일까지 유효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사필 2023-광고-07437호(2023.10.30) / CC브랜드 231026-0255

춘천시 '춘천애온봄' 상복 터졌네…생애주기별 돌봄 복지 구현



강원 춘천시가 올해 복지 분야 주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연말을 맞아 옛따라 수상 성과를 거두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춘천시는 민선 8기 육동한 시장이 취임한 이후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지역형 돌봄통합 브랜드인 '춘천애(愛)온봄'을 만들어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 아동과 노인, 장애인, 청소년, 여성, 저소득계층 등 지역 전반적인 복지 분야에 골고루 성과를 낸 것은 통합 돌봄을 통해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연착륙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실제 아동 분야에서는 최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정책 영향평가 우수 지자체로 유공표장을 받았다.

또 올해 시립어린이집 6곳 증설과 보육 공백 방지를 위한 보조 교사 및 대체 교사 인건비 지원, 원아(3~5세) 특별활동비 지원 등으로 올해 보건복지부 보육정책 평가 우수 지자체로 뽑혔다.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서 올해 시의 자체 사업으로 전환한 이 사업은 복지·의료·주거·스마트돌봄 등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및 연계하는 것이다.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 공동체 조성' 구체화

과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을 통해 장기입원 환자 퇴원 유도 등이 인정받은 결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한 수상이다. 아울러 이웃들이 마을의 어려움을 들보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선한이웃 마을 돌봄' 프로젝트는 지난 2021년 민선 7기에 시작했지만, 호응을 얻어 민선 8기까지 이어지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밖에 보훈 명예 수당 대상 확대 및 지원액 인상, 국가보훈대상자 우선 주차 구

역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시의 복지 정책이다.

이영애 복지국장은 30일 "앞으로 민선 8기 시정 목표를 더 구체화해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실행계획과 운영 방안을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다"며 "촘촘한 생애주기별 돌봄 실현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민지훈 기자



평창 송어축제 얼음낚시터

"황금 송어를 잡아라"

제15회 평창송어축제 개막…31일간 대장정

제15회 평창송어축제가 29일 강원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 일원에서 개막했다.

애초 개막일은 지난 22일이었지만 이 달 초 이상 고온으로 얼음이 얼지 않아 일주일 연기됐다. 이날 시작한 축제의 대장정은 내년 1월 28일까지 31일간 열린다.

2007년 시작한 평창송어축제는 해마다 성장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겨울 농한기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공백기를 딛고 지난해 열린 제14회 축제는 40만명의 관광객을 동원해 그 인기를 확인했다.

축제 콘텐츠의 만족도와 차별성에서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2024~2025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축제 기간인 내년 1월 19일 2024 강원도청 소년올림픽이 개막해 어느 해보다 많은 외국인이 축제장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축제는 송어 잡기, 겨울 놀이, 먹거리 체험으로 진행된다.

축제의 백미는 송어 잡기다. 얼음벌판에서 지름 20cm 안팎의 구멍을 뚫어 낚는 얼음낚시를 비롯해 실내 낚시도 인기다. 찬물 속에서 쏜살같이 달아나는 송어를 맨손으로 잡아 옮기는 맨손잡기는 또 다른 손맛을 느낄 수 있다.

실내 낚시터에서는 어린이나 노약자도 쉽게 송어잡기를 할 수 있다.

축제장에 마련된 먹거리터에서 잡은 송어를 회와 구이로 요리해 즉석에서 맛볼 수 있다. 눈 광장과 얼음광장에서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겨울 레포츠를 체험할 수 있다.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을 위한 이벤트도 다양하다. 무엇보다 얼음 낚시터에서 황금 송어를 잡으면 순금 반돈으로 제작한 기념패를 증정한다.

최기성 평창송어축제위원회 위원장은 "겨울 축제 도시의 명성에 걸맞게 다양한 방문객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과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서정민 기자

국토 최서남단 가거도에 식물 '겨울딸기' 서식 확인



전남 신안군은 가거도에 '겨울딸기' 식물이 대규모로 서식하고 열매 맺는 것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꽃은 초여름부터 9~10월에까지 피며, 열매는 가을부터 겨울에 익기 때문에 겨울딸기라고 이름 지어졌다.

겨울딸기의 줄기는 서지 않고 기는 듯 자라며, 가지는 듬성듬성하지만, 텔이 빽빽하다. 잎은 전반적으로 달걀 모양이거나 원형에 가까우며, 가장자리는 크고 작게 결각이 나 있고 밑부분은

심장 모양이다.

가을에 흰 꽃이 피지만 그리 무성하게 많이 달리지는 않는다.

겨울딸기 군락지에서는 겨울철 먹이가 부족할 때 이 열매를 먹는 새 모습이나 월동하는 다양한 새소리를 들을 수 있다.

신안에서 겨울딸기를 볼 수 있는 곳은 가거도, 흑산도, 홍도이다.

내륙의 추운 곳에서는 겨울을 날 수 없지만, 해안을 중심으로는 물에서도 겨울나기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기후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난대림이 확산하고, 고유한 식생과 식물상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기존의 자생식물을 발굴해 귀중한 자원으로 후세에 남기겠다"고 말했다.

/ 박소희 기자

"울산페이로 산 책, 도서관에 반납하고 책값 돌려받으세요"

월 최대 4만원·2권까지 신청 가능…올해 2천여 명 참여



납하면 도서 금액을 울산페이로 환급해주는 것이다.

시는 이 사업을 2020년부터 5년째 한다. 올해는 총 2천276명이 참여해 3천751권을 반납했다.

내년에도 기존처럼 월 4만원 내에서 2권, 연 최대 48만원·24권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 도서, 문재집, 심화단계 전문도서, 오염·훼손 도서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시민이 반납한 도서는 울산도서관에 등록되거나 지역 내 작은 도서관에 기증된다.

도서 구매가 가능한 지역서점과 사업 참여 공공도서관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울산도서관 관계자는 "해마다 시민들의 높은 호응과 공공도서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시 독서문화 분위기 조성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백서연 기자

중앙선 KTX-이음 서울역까지 연장운행…국토장관 "철도망 확충"

서울 청량리역과 경북 안동을 잇는 중앙선 'KTX-이음'이 29일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KTX-이음의 일부 열차는 이날부터 청량리역을 지나 서울역까지 운행하게 된다.

이번 연장 운행으로 해당 열차 승객들은 청량리역에서 환승하지 않고도 서울역으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역에서 열린 KTX-이음 연장 개통식에 참석해 "내년에 중앙선 안동~영천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중앙선은

서울과 부산을 잇는 제2의 경부 축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토 균형발전의 최대 인프라자 지역 경제 성장의 핵심



2023.12.29(금) 서울역
중앙선 KTX-이음, 서울역 연장 운행 개통

죽인 국가철도망 확충에 더욱 박차를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오후에는 김포 공항 여객터미널을 찾아 연말 연휴 수송대책과 동절기 항공안전 현장 점검을 했다.

/ 김유정 기자

내 개인연금, 글로벌 자산관리로 이전하자!

앱으로 간단히 개인연금 이전하고
관리는 미래에셋증권 개인연금 랩어카운트로!
글로벌 연금 전문가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는 가장 쉬운 방법!
미래에셋증권 앱으로 연금계좌 개설하시고,
지금 바로 이전하세요!



[미래에셋증권 연금자산관리센터 1588-5577]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간이)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 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부동산 가격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펌케이션 위탁매수 수수료와 펌케이션의 수수료는 있으나,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해당 상품의 약관, 설명서 등에서 정한 보수, 수수료, 증권거래비용 등의 비용은 고객님이 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종료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개인연금 랩어카운트는 고객별로 운용·관리되는 투자일정계약이며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1584호 (2023.05.20~2024.05.20)

SAMSUNG**BESPOKE 큐브™ Air**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삼성이 함께 응원합니다

가전을 나답게。

신빙속여제 김민선, 전국 스프린트 선수권 우승…전 종목 1위

'신빙속여제' 김민선(의정부시청)이 국내 최고의 단거리 선수를 뽑는 제50회 전국남녀 스프린트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 대회에서 전 종목 1위를 차지하며 우승했다.

김민선은 29일 서울시 노원구 태릉 국립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여자 500m 2차 레이스에서 38초62의 성적으로 이나현(노원고·38초80)을 꺾고 1위를 기록했다.

그는 이어 열린 여자 1,000m 2차 레이스에서도 1분18초37로 이나현(1분19초01)을 크게 앞서며 1위에 올랐다.

전날 여자 500m 1차 레이스, 여자 1,000m 1차 레이스에서 1위를 차지했던 김민선은 이번 없이 우승했다.

종합 2위는 전 종목 2위에 오른 이나현이, 3위는 김민지(서울일반)가 올랐다.



김민선이 29일 오후 서울 노원구 태릉국립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제50회 전국남녀 스프린트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여자부 500M 2차에서 질주하고 있다.

스프린트 선수권대회는 단거리 선수들이 경쟁하는 대회로 남녀 500m와 남녀 1,500m 1, 2차 레이스, 남녀 5,000m, 남자 10,000m, 여자 3,000m 성적을 합산해 최종 순위를 정한다.

그는 29일 남자 500m 2차 레이스와

1,000m 2차 레이스에서 1위에 오르며 조상혁(스포츠토토·종합 2위), 김준호(강원도청·종합 3위)를 제쳤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제27회 전국남녀 종합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마지막 날 경기에서 정재원(의정부시청)이 남자 1,500m 1위, 남자 10,000m 2위를 차지해 종합 우승 메달을 거머쥐었다.

베테랑 이승훈(알펜시아)은 2위, 안현준(성남시청)은 3위로 뒤를 이었다.

여자부에선 박지우(강원도청)가 종합 우승했다.

종합선수권대회는 장거리 선수들이 경쟁하는 대회로 남녀 500m와 남녀 1,500m 1, 2차 레이스, 남녀 5,000m, 남자 10,000m, 여자 3,000m 성적을 합산해 최종 순위를 정한다.

/ 최준용 기자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복귀 후 첫 선발…노리치는 패배

배준호 풀타임 출전한 스토크시티는 왓퍼드와 무승부



황의조

성행위 영상 불법 촬영 혐의를 벗을 때 까지 축구 대표팀에서 배제된 공격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햄스터링 부상에서 회복한 이후 소속팀 경기에 처음으로 선발 출전했다.

황의조는 30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더 뎐에서 열린 밀월과의 2023-2024 잉글랜드 풋볼 리그(EFL) 챔피언십(2부리그) 25라운드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후반 33분 조시 사전트로 교체될 때까지

뛰었다.

전 연인과의 성관계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황의조는 지난 달 말 왓퍼드와의 18라운드 이후 햄스터링 부상으로 4경기에 결장했다가 24일 허더즈필드와의 경기에 교체 출전해 복귀한 바 있다.

이후 27일 웨스트브롬과의 경기에도 교체로 나서서 29분을 소화한 그는 이날 은 복귀 이후 처음으로 선발로 그라운드



달리는 황소

황희찬, 오늘 밤 박지성 넘을까 한국인 EPL 득점 2위 도전

'황소' 황희찬(울버햄프턴)이 '전설' 박지성을 넘어 한국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통산 득점 2위에 도전한다.

울버햄프턴은 31일(한국시간) 0시 영국 울버햄프턴의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에버턴을 상대로 2023-2024 EPL 20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

황희찬은 직전 브렌트퍼드와 경기에

박지성은 황희찬 또래 한국 선수라면 누구나 우상으로 삼았던 대선배다. 박지성의 기록을 넘어선다는 것 자체가 황희찬에게는 영광스러운 경험이 될 터다. 황희찬의 득점 페이스는 그가 EPL에 진출한 이래 가장 빠르다.

올 시즌 10골을 작성하며 EPL 입성 3시즌 만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다.

'팀내 최고대우' 황희찬…울버햄튼과 2028년까지 재계약

서 허리 부상으로 교체됐으나 단순 근육 경련으로 드러나 에버턴전에도 출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에버턴전에서 황희찬은 특별한 기록에 도전한다.

한국 축구의 '개척자'이자 '살아있는 전설'인 박지성의 EPL 통산 득점 기록이다.

박지성은 2005-2006 시즌부터 2012-2013 시즌까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퀸스파크 레인저스에서 뛰며 154경기 19골을 기록했다. 한국으로 손흥민(토트넘)에 이어 2위에 해당한다.

황희찬은 브렌트퍼드전에서 멀티골을 푹발하며 EPL 통산 득점수를 18골로 늘렸다.

에버턴전에서 1골을 넣으면 박지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2경기 연속 멀티골을 작성한다면 그를 넘어서게 된

그는 EPL 데뷔 시즌인 2021-2022 시즌엔 5골, 부상이 잦았던 2022-2023 시즌엔 3골을 기록했다.

에버턴은 리그 2연패의 부진에 빠져 있어 울버햄프턴의 승리와 황희찬의 11호 골을 향한 기대감은 크다.

특히 황희찬은 이 경기를 끝으로 잠시 울버햄프턴을 떠나 클린스만호에 합류,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할 예정이라 연속 골욕심을 더 낼 걸로 보인다.

한편, EPL 한국인 통산 득점 1위는 단연 손흥민(토트넘)이다. 무려 114골을 넣었다.

박지성, 황희찬 다음으로는 15골의 기성용(스완지시티·선덜랜드·뉴캐슬·현 서울)과 8골의 이정용(볼顿·크리스털 팰리스·현 울산)이 각각 4, 5위로 뒤를 잇는다.

/ 박민재 기자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함께 약속하고 함께 지킵니다

월급 2,060,740원
(주40시간 근무시)

‘모범택시’ 이제훈·‘악귀’ 김태리, SBS 연기대상 공동 수상

이제훈, 수상 소감에서 이선균 추모…“하늘에서 행복하시길”

드라마 ‘모범택시’ 시리즈의 이제훈과 ‘악귀’의 김태리가 올해 SBS 연기대상 대상을 거머쥐었다.

SBS는 29일 오후 상암 SBS 프리즘타워에서 ‘2023 연기대상’을 열어 이제훈과 김태리에게 공동 대상을 수여했다.

이제훈은 올해 2~4월 방송된 드라마 ‘모범택시’ 시즌2에서 악자를 대신해 범죄자에게 복수하는 무지개 운수 택시 기사 김도기 역할을 맡아 화려한 액션 연기를 선보였다.

‘모범택시’ 시즌2의 최고 시청률은 21%로 올해 모든 방송사의 드라마를 통틀어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제훈은 수상 소감에서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서 복수해준다는 로그라인(줄거리)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졌다”며 “실제로 사건을 겪은 분들에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제훈은 또 최근 유명을 달리한 이선



배우 김태리(왼쪽)과 이제훈

균을 염두에 둔 듯 “오늘 너무나도 아픈 날이기도 하다”며 “개인적으로 작품에 인연이 없었고 함께한 순간이 스치는 순간 밖에 없었지만, 저는 그 분이 걸으신 길을 보면서 배우라는 꿈을 키웠다”고 말했다.

이어 “(이선균을) 룰모델로 따라가려

했던 것 같다”며 “그 분께 이 상을 드리고

싶다. 하늘에서 편안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태리는 6~7월 방송된 드라마 ‘악귀’에서 악귀에 쓰인 주인공 구산영을 연기해 호평받았다. 평범한 여성 구산영과 소름 끼치는 악귀 두 모습을 소화해내는 연기력을 한국형 오컬트 드라마의 완성도

를 높였다. 김태리의 열연에 힘입어 ‘악귀’는 11.2%의 높은 시청률을 남겼다.

‘모범택시’ 시즌2는 이제훈의 대상 외에도 네이버가 뽑은 올해 최고의 드라마로 선정됐고, 출연 배우 신재하와 표예진이 시즌제 드라마 우수 연기상을 받는 등 올해의 활약을 인정받았다.

‘악귀’ 역시 출연 배우 홍경이 미니시리즈 장르·액션 우수 연기상을, 진선규가 베스트 퍼포먼스상을, 김원해가 미니시리즈 장르·액션 조연상을 받았다.

한석규가 주연한 장수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3은 출연 배우 안효섭과 이성경이 시즌제 드라마 최우수 연기상을 받았고, 작중 배경이 된 ‘돌담병원’ 멤버들이 올해의 팀으로 선정됐다.

‘국민사형투표’의 박성웅과 ‘마이 데모’의 김유정은 각각 미니시리즈 장르·액션 부문과 멜로·로맨틱코미디 부문 최우수 연기상을 거머쥐었다.

/ 이채원 기자

‘태계일주’ 기안84, MBC 연예대상 “돌아가신 아버지 떠올라”

올해의 예능상도 ‘태계일주’

예능인상은 기안84·전현무·유재석

웹툰 작가이자 방송인 기안84(본명 김희민)가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 시리즈의 인기에 힘입어 MBC 연예대상을 받았다.

MBC는 2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신사옥 미디어센터에서 ‘2023 MBC 방송연예 대상’을 열어 기안84에게 대상을 수여했다. ‘나 혼자 산다’에 오랜 기간 고정 출연해온 기안84가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기안84는 ‘태어난 김에 사는 남자’라는 그의 별명을 딴 프로그램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에서 꾸밈없고 순수한 모습으로 오지를 여행하고 스스럼없이 현지인과 가까워지는 모습으로 호평받았다. 대상 경쟁 후보로는 유재석과 전현무가 함께 이 팀을 올렸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TV를 보던 때를 언급하면서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 까지 용돈을 한 번도 못 드렸다”며 “생전에 잘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못 해드린 게 너무 아쉽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작년 연말 시즌1이 방송된 이래 높은 인기를 얻어 현재 시즌3이 방송되고 있는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는 이번 시상식에서 대상뿐 아니라 올해의 예능 프로그램 상과 베스트 커플상(기안84·엑스·빠니보틀), 남자 신인상(엑스) 등을 받으며 축제의 주인공이 됐다.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를 연출한 김지우 PD는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보시는 분들이 태어난 김에 후회 없이 행복하게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정말 감사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기안84는 대상 외에도 올해의 예능인상을 받았다. ‘나 혼자 산다’의 전현무와 국민 MC 유재석도 기안84와 함께 올해의 예능인상을 수상했다.

장수 프로그램인 ‘나 혼자 산다’는 이장우가 리얼리티 부문 남자 최우수상을, 박나래가 여자 최우수상을, 코드 쿤스트가 리얼리티 부문 인기상을, 박나래·이장우·전현무가 베스트 팀워크상을, 김대호·아나운서가 남자 신인상을 받으며 건재한 인기를 과시했다.

이장우는 “어머니 아버지께서 장가가고 계속 암박을 넣으신다”며 “아버지, 나 이 상 받아서 좀 더 오래 혼자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라고 말해 프로그램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놀면 뭐하니?’는 유재석이 올해의 예능인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하하가 쇼·バラ이어티 남자 최우수상을, 주우재가 남자 우수상을 받았다.

자신의 이름을 건 프로그램 ‘오은영 리포트’로 ‘국민 멘토’라는 별명을 얻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는 시사·교양 MC상을 받았다. / 김희성 기자

세계연합신문

www.wunionnews.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175

편집인 조영광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희진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 광고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더 넓어진 예금자보호제도

2023년 10월 17일부터

✓ 연금저축

✓ 사고보험금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 5,000만원까지 별도 보호

금융위원회

KDIC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DC형, IRP 퇴직연금은 2015년부터 5,000원만원까지 별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GANGWON
2024
YOUTH
OLYMPIC
GAMES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개최를
KB국민은행이 함께 응원합니다

2024년 KB국민은행이 인천국제공항 제1사업권자로 선정되었습니다

KB국민은행이 인천국제공항에 다시 문을 엽니다
제1·2여객터미널 내 고객님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은행 업무 및 환전은 물론, 여행자보험까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국가고객만족도 1위 KB국민은행
앞으로 10년 동안 대한민국 제1관문 인천국제공항에서도
고객만족도 1등에 맞는 품격 있는 금융서비스로
고객님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 인천국제공항지점 OPEN



* KB국민은행은 2024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인천국제공항 내 2개의 영업점과 11개의 환전소 및 15개의 ATM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KB국민은행